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2호 [주제 제26056호] 주제 107 (2018)년 7월 1일 (일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신의주  
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안정수동지, 황명  
서동지, 한평상동지, 김성  
남동지, 조용원동지, 오일  
성동지, 황영철동지가 동행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  
안북도위원회 부위원장들이  
피해 일동지, 안경근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과 인사를 나누  
시며 『봄향기』화장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신의주화장  
품공장에 언제부터 한번  
와보려고 하였는데 오늘에  
야 왔다고, 공장에서 최근

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시간을 내여 왔다고 따뜻이 말씀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9년  
9월 23일에 우리 나라의 첫 화장품생산  
기지로 창립하여 주신 신의주화장품공장의  
근 70년 역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  
고 더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실과 로고의 자욱이 갈피갈피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에 모셔진 뜻깊은



사진문화들을 깊은 감회속에 보시면서 우  
리 나라 화장품공업의 시초를 열어주신  
우리 수령님과 경치 좋고 물맑은 남선의  
주지구의 아담한 산기슭에 공장에 전을 새  
로 잡아주시고 장래발전을 위한 둔든한  
토대를 턱아놓으신 우리 장군님의 혁명  
한 정도와 각별한 관심속에 공장이 자랑  
찬 발전행로를 걸어온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씨를  
뿌리고 가꾸시여 물려주신 고귀한 재부들  
을 후손만대에 끌없이 빛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깃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함  
으로써 화장품공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  
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비누직장, 기초화장품직장, 화장품직장,  
제품검별실, 봄향기화장품전시장 등 공  
장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  
시면서 화장품생산 및 공장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짧은 기간에 자동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세척용화장품, 머리칼용  
화장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장품생산공  
정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은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생산현장에 위생통과실을 새로 꾸리  
고 공기조화설비들을 설치하여 생산공정  
의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였을  
뿐아니라 작업현장바닥과 벽체를 에폭시  
수지와 아크릴수지칠감으로 바깝하여 화  
장품을 생산하는 공장답게 생산현장이 깨  
끗하고 정갈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침단돌과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  
지휘 및 기술공정관리, 경영관리를 정보화  
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진행  
할수 있게 통합생산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배합공정, 속성공정, 주입공정, 포장공  
정, 용기소독공정, 물정제공정 등을 현대  
적으로 꾸리고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완

성에 이르기까지의 전반공  
정에서 무인화, 자동화, 흐  
름선화를 실현하였으며 수  
지용기생산설비와 접착상표  
인쇄설비를 보충하여 용기  
를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생  
산하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  
하시였다.

공장에 새로 꾸린 세척용  
및 액체화장품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원료, 자재와  
제품을 반에 필요한 무인운  
반차를 비롯하여 수많은 설  
비들을 공장기술자들과 기  
능공들이 자체의 힘으로 설  
계제작하거나 도안의 기계  
공장들에서 만들었다는 이  
야기를 만족하게 들어주시  
셨다.

질 좋은 머리칼용화장품과  
치료용화장품을 비롯한 수  
십가지의 새 제품들을 개발  
하고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  
력을 조성한데 대하여 대단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그  
동안 소문없이 정밀 많은

일을 해놓았다고, 들판비대로 럭시가 오  
랜 령도업적단위가 다르다고, 공장일군  
들과 로동계급의 이익한 투쟁정신과 근  
면한 일본사에 탄복하게 된다고, 민족에  
대민족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은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공장이라고 치하하  
시면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의 불길높이 명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인민들이 즐겨찾고 선호하는 질 좋은 화장  
품들을 대대적으로 팽창 생산해내고 있는  
데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2 면 으로 계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면에 서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을에서 그 가치수를 다 헤아릴수 없는 다종다양한 화장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나오고 우리녀성들이 미처 끌라쓰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번만이라도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수령님, 장군님 한평생의 로고가 스민 귀중한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 인민들이 그 떡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 수령님 생각,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의주

화장품공장에서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비약해야 한다고, 《봄향기》화장품에 대한 인민들의 호평이 대단하고 수요가 높다고 하여 절대로 자자자찬하지 말고 《은하수》화장품을 비롯한 우리 나라 화장품들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을 대비적으로 분석하여보면서 공장제품들의 짐을 새롭게 개신하고 수요자의 기호와 낭형, 체질별 특성에 맞게 품종을 늘려나가기 위한 연구사업을 부단히 실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특성한 효과물을 정확히 담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열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분석설비를

갖추고 새로운 실험방법과 기술들을 책임없이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장품의 가치를 높이는데서 화장품용기도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제품의 특성과 기호품으로서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사용에 편리하게 각이한 형태와 크기, 색깔로 만들며 화장품을 선물하거나 기념품으로 줄수 있게 포장형식을 다양하게 할 때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제품들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함에 대한 문제, 생산공정에서 손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공업화하기 위한 현대화 사업을 계속 내밀에 대한 문제, 생산자 대중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술자,

연구사내력을 잘 꾸려 공장을 과학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된 기술집약형공장으로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화장품원료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문제, 문상용화장품과 차향수, 위생실향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많이 개발생산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화장품생산에서 틀어쥐고나갈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품 진본실과 봄향기화장품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특색있게 잘 꾸렸다고 치하하시면서 평양시내에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봄향기》화장품을 전문판매하는 상점을 멋있게 건설할데 대한 지시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의 복무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화장품공업의 발전을 앞장에서 선도해나가며 인민생활향상에 헌답게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성과를 그토록 값높이 평가해주시며 한없이 다심하고도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 과업을 철저히 관찰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점지보도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김정은동지

동지  
나는 지난 5월 18일 꾸바에서 려개기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당신이 위문을 표시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까스프로루쓰

2018년 6월 28일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 수상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김정은동지

동지  
나는 지난 5월 18일에 있은 비극적인 려개기사고로 꾸바가 아픔을 겪고 있던 시기에 당신이 심심한 위문과 친근한 현대성을 표시하여 준데 대하여 꾸바인민과 정부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이름으로 충실히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 수상

미겔디아스까넬베르무데스

2018년 6월 28일

## 사회주의 내

## 조국의 영원한 태양

제31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 수뇌자 회의에 축전을 보내온다

아바나

2018년 6월 28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위원회

여러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회고위원회

위대한 수령 김



«예, 알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부에 장 심명우는 심드렁한 눈길을 다시 풀리며 주었다. 두시간 후에 책임임금의 방에 오리는 편력을 밟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상처 입은 자손들이 불쑥 머리를 쳐들었다. 자신의 행동이 야속하지 않았지만 끊어놓은 죽이니 멀수 없었다.

일인즉 이어졌다.

얼마전 저녁에 보도문 시간이었다. 한글은 예보원이 다음날 오전 향기방지방에 강수를 예전하는 의결을 제기하였다. 그때 헤대적인 수치에 보자로 분석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약간 주눅이 들어있었다. 자기의 예측을 날씨시킬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였던 것이다.

서로의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당당한 걸음을 내딛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근심 어린 눈빛들이 예보원 실내 한켠을 빠져 대형화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심명우가 나섰다. 그는 화면에 나타난 분석자료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평양지방에 강수를 예전하는 걸을 알았다.

그들이 아직 경험을 부족하고 자기 주장에 증명을 따라세우는 능력이 모자랄뿐이지 관측도 민족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그의 당혹한 제기의 의의에 초기의 예보안이 위험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4월의 맑은 하늘은 갑자기 흐려지며 거의 한시간이나 눈꽃이 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전에 명우는 예보원으로서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기상조례에서도 미묘한 정확한 결론을 꿈꾸었지만 당시자기 되었다.

백날기쁨이 하루피로 움을 당하지 못한다고 명우는 실한 자책 속에서 해어 나오기 힘들었다. 자연현상에 평생대는 것은 예보원의 자세와 방식이 아니라 그자신이 새 세대 예보원에게 임무로처럼 말해왔다.

2011년에 황해남도의 무왕지대가 폭우피해를 크게 입었을 때였다. 그때 명우는 그지방에 비가 많이 올것은 예전하였지만 무려 8시간동안이나 대형기둥들은 상상도 못했다. 명우는

## 실화

# 영예로운

# 초소

그때 제해성기상예보를 잘하지 못한 책임을 자신이 겪을뿐이니라 다시는 그러한 학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사업은 자손들이 불쑥 머리를 쳐들었다. 자신의 행동이 야속하지 않았지만 끊어놓은 죽이니 멀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학오까지 벌하고 얼비전 저녁에 보도문 시간이었다. 한글은 예보원이 다음날 오전 향기방지방에 강수를 예전하는 의결을 제기하였다. 그때 헤대적인 수치에 보자로 분석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약간 주눅이 들어있었다. 자기의 예측을 날씨시킬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였던 것이다.

서로의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당당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쉽지 않았다.

«뭐요? 마른하늘에 벼락같은 소릴…»

불쑥 찾아와 밀도 끝도 없이 자기비판을 하고난 명우이 자기 부대장자격이 없다고 하니 책임임금으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이번에 실수했다고 서서히 차기로 피워졌다. 그는 지금 20대 청년예보원 항미의 모습에서 수십년전의 자기를 보고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때로는 자본이 종사하는 직업은 사회적인 문문이며 당시 말거운 영예로운 초소입니다.»

39년전 20대 초엽의 만발 머리처녀 심명우이 예보사업에 첫발을 밟았을 때만 하여도 그는 자기 일에 떨로 긍지감을 느끼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그의 희망은 어떤 병도 책적 철단을 높일수 있는 헌대적인 프로 그램들이 개발도입되었으며 예보과학기술이 개선되고 예보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철학을 품은 예보원들의 노력으로 젊은 기관에 부록 올라섰다.

«그에도 실동무가 없는 예보 대를 생각할 수 있소?»

성이 품 누그러든 책임임금이 혼자말처럼 되뇌이자 명우는 용기를 내어 제자들이었다.

«나도 이런 예술이 아님니까.»

책임임금은 더 말이 없었다. 그가 당조직과 토론한 다음 예일 끊겠다고 하였는데 글방 찾는다는 전화가 온것이다.

※ ※

(그래, 이제 말 끊겠어. 응

당 세 세대들이 때메 고나가 야지워.)

그린 듯이 애매 제 생각에 움직이면서 심명우이 인기척에 뛰들 아보니 예보원 리항미가 새들세 물 웃고 있었다.

«부대장동신 예보사업이 그렇게 재미난니까.»

그는 부대장이 하루에 두번식 이나 어비이수령님께 보고드리는 그런 영예로운 직업은 없지 않겠나.»

«온종이 기상자료분석에 심취되어있는걸 보면 미처 예보를 위해 떠여온 사람같습니다.»

그 말에 명우이 펴 웃었다. 지금껏 적지 않게 들어온 소리인 것이다.

«나도 그렇게 말했던적이 있었어요.»

가정사나 파끼이아끼를 품해 서서히 차기로 피워졌다. 그는 지금 20대 청년예보원 항미의 모습에서 수십년전의 자기를 보고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때로는 자본이 종사하는 직업은 사회적인 문문이며 당시 말거운 영예로운 초소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상수문을 지도한 스승이기도 하다. 그의 신중한 기색에 위엄뿐 아니라 예보원들의 실력이 많이 차렸습니다.

박사인 책임임금은 명우의 박사문을 지도한 스승이기도 하다. 그의 신중한 기색에 위엄뿐 아니라 예보원들의 실력이 많이 차렸습니다.

그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자기 주장에 증명을 따라세우는 능력이 모자랄뿐이지 관측도 민족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그의 당혹한 제기의 의의에 초기의 예보안이 위험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4월의 맑은 하늘은 갑자기 흐려지며 거의 한시간이나 눈꽃이 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전에 명우는 예보원으로서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기상조례에서도 미묘한 정확한 결론을 꿈꾸었지만 당시자기 되었다.

백날기쁨이 하루피로 움을 당하지 못한다고 명우는 실한 자책 속에서 해어 나오기 힘들었다. 자연현상에 평생대는 것은 예보원의 자세와 방식이 아니라 그자신이 새 세대 예보원에게 임무로처럼 말해왔다.

«나도 이런 예술이 아님니까.»

책임임금은 더 말이 없었다. 그가 당조직과 토론한 다음 예일 끊겠다고 하였는데 글방 찾는다는 전화가 온것이다.

※ ※

(그래, 이제 말 끊겠어. 응

질문이었다. 빨간 헤내기조수

에게 과연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한동안 궁리해보던 리정주는 사립 좋은 서글서글한 인상을 조급도 달라붙었으면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일을 재미로 하지 않소. 나라에 숨한 일터가 있어도 우리 예보원들처럼 자기가 일한 걸 푸른 바탕에 두번식 이나 어비이수령님께 보고드리는 그런 영예로운 직업은 없지 않겠나.»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 말에 명우이 펴 웃었다. 지금껏 적지 않게 들어온 소리인 것이다.

«나도 그렇게 말했던적이 있었어요.»

가정사나 파끼이아끼를 품해 서서히 차기로 피워졌다. 그는 지금 20대 청년예보원 항미의 모습에서 수십년전의 자기를 보고있었던 것이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팔을 실망시켰었다. 어찌다 딸과 함께 거리에 나섰을 때에 조차 비행방울이 펼어지지 않는가 흔들어까우며 『이에미야, 비줄 키가 형편없이 굽어졌구나. 사립들에게 계대로 알려겠니?』라고 균심스레 물어 하면 어머니 조

각했던 예보원, 이론새벽 비가 돌아지면 퍼포먼스에 민족을 살피며 조합하고 하여 손바닥을 내밀어보거나 온도가 예보와 맞는지, 구름이 예보에 정확한 순간으로 흘러가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설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우에게는 실증을 자주시키기 위해 헤여온 사람같습니다.»

그는 경계 말하지 않고

